

'도심 숲' 익산 마동공원 준공

공원일몰제 실효 위기 극복, 전북자치도 최초 민간공원특례사업 결과 정치인 · 시민 1000여명 참석... 장민호 · 강혜연 · 박서진 등 축하공연

익산시 마동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도시공원이 탄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개발행위 민간특례사업 결과물인 마동공원이다.

익산시는 29일 오후 마동공원 커뮤니티센터 앞 광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해 이춘석 국회의원 당선인, 김대중 · 김경수 · 한정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익산시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과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익산시 마동 도심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도시공원이 탄생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최초의 개발행위 민간특례사업 결과물인 마동공원이다.

이 자리에서 정현을 시장은 마동공원 조성 과정서 성실하고 철저히 공사를 진두지휘한 유성근 시행사 대표와 오인택 갑리단지장, 박기호 조경소장 등 3명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했다.

마동공원의 준공을 기념하는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강혜연 레이디Z, 박서진, 이소을 손현수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마동공원은 주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1.5km 길이의 산책길을 중심으로 시원한 물을 내뿜는 벽천 인공폭포와 전통 건축양식을 활용해 지어진 쉼터, 커뮤니티센터, 야외무대, 전용 주차장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미끄럼틀과 그물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연령별로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여러 놀이공간과 바다분수 등이 조성돼 가족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시는 공원 전체를 일종의 '도시 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건강한 수목과 초화류 식재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마동공원 뒤를 바로 이어 수도산공원과 모인공원도 오는 6월, 9월에 각각 준공을 앞두고 있다.

금강동 일원에 자리한 수도산공원은 남부권 주민 수요를 반영한 실내 수영장이 들어서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바다분수와 수경 시설인 산수첩, 경원, 헬스장,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놀이시설이 조성되는 만큼 울림부터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공간이 될 전망이다.

모현동에 조성되는 모인공원의 경우 문화놀이터를 주제로 삼았다. 공원에 숲속도서관과 야외공연장, 모인저수지를 기반으로 한 생태학습원, 티하우스 등 휴양시설, 체력회원을 위한 운동시설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민간특례사업'은 도시공원 일몰제 실효 위기에 빠진 장기 미집행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고안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중국 스타도와 웨이하이에서 군산항 특송 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군산항 포트 세일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웨이하이서 군산항 홍보 행사 개최

군산시, 중국 이커머스사 · 특송업체 등 150여명 참석 성황리 마쳐

군산시는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중국 스타도와 웨이하이에서 군산항 특송물류 네트워크 구축과 물류시장 개척을 위한 군산항 포트 세일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포트세일즈 추진단은 군산시 장영제 경제항만국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세관, 군산해양수산국, 특송업체, 하역사 및 항운노조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진단은 스타도인산 운영사와 중국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갖는 등 현지 유관기관 및 기업체와 공동으로 노력하여 군산항 물동량 유치와 특송물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중국 특송물류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위해중환보세구를 방문하여 웨이하이시 상무국 부국장과 특송물류 보세창고를 함께 둘러보고 양국간 특송화물 확대 방안을 논의하면서 올

해 2월에 개장한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물동량 추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28일 오후 6시에 개최된 군산항 홍보 설명회 행사에는 주칭다오 한국대사관 박희병 경제영사를 비롯한 웨이하이시 상무국 관계자와 중국 현지 이커머스사, 특송업체 등 물류기업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항 현황과 장점, 인센티브 지원제도 및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특·장점등을 홍보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중국 현지 특송업체인 위해운광공급체인관리유한회사 우원걸 대표는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의 당일 통관시스템은 타항만과 비교 불가한 장점이라며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군산항 이용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군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알록달록 신홍공원

도심 속 여유 즐기는 친수공간... 익산시민의 보물

익산시가 신홍공원을 친수공간을 활용한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정수장 주변 공간인 신홍공원은 시민들의 접근이 제한돼 왔으나 2019년부터 신홍공원 일부를 개방하고 계절별 초화류를 식재한 꽃바람 정원을 조성했다. 이후로 매년 어린이집 원생들과 정원에 관심있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저수지 주변에 조성된 돌레길은 한 바퀴에 평균 40여 분이 걸리는 산책로다. 신홍정수장 저수지 제방길과 소나무길을 지나며 만나는 철새들과 이름 모를 들꽃을 감상할 수 있는 소중한 시민들의 보물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돌레길 서편에 일부 단절돼 있던 200여 m 구간에 새로 길을 연결해 그간 외부 도로를 이용해야했던 불편함을 해결하기도 했다. 길에서 숲과 어우러진 저수지를 바라보는 경관이 무척이나 아름다워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수지 주변 4만여 m² 구역을 잡목을 제거하는 정비로 식생환경과 공원경관이 크게 개선됐다.

시민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맨발길도 새로 조성된다. 신홍근린공원 기존 산책로를 따라서 1.1km 길이의 맨발걷기 길에 파노라마 가벽과 세죽대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시는 신홍공원에 다양한 초화류와 화초류를 식재해 색을 더하고, 특별한 갤러리 컴퓨터를 조성하는 등 수변 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행복정원으로 꾸며갈 예정이다.

우선 꽃바람 정원의 능선 반대편 8,800m² 면적에 '무지개정원'을 주제로 대규모의 화목류를 식재해 사계절 다양한 빛깔로 채워진다. 이를 시작으로 신홍공원의 수변공간을 산책하며 '다양한 색'을 즐길 수 있는 정원을 점차적으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원 내 1.3ha 면적에 도심권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한다. 유아숲에는 2억 원을 들여 주변 환경과 조화로워진 진문성, 예술성 창의성이 우수한 놀이기구 등이 조성된다.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 컨셉에 맞춘 요소들로 공간을 채우게 된다.

4차선 도로로 단절된 신홍근린공원과 중앙체육공원의 연결을 위해 신보행교가 설치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